

<지난주 말씀 & 서론>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 자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확증하셔야 합니다.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그게 확증이 안 되면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확증은 답이 나고 결론난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고 결론이 났어도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깐 그것이 나에게서는 결론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증이 되어야만 사탄이 겁을 냅니다. 확증이 안되면 사탄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한번 말씀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과 유일성과 창조를 찾는 24, 25, 영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종교생활하듯이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분명하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세계렘넌트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 가운데 여러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이 대회에 참여해서 팀사역과 미팅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한 제자는 아예 제 방으로 불려서 두시간 정도 팀사역을 한 결과 정말 남은 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라오는 길에는 돌아오는 제자 3명과 함께 6시간동안 포럼을 통해서 그들이 답을 얻고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 참여하는 모든 237나라 5000종족의 제자들이 답을 내고 신앙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결론내고 확증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돼, 그거 안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노숙자들에게 빵을 주고 밥을 갓다줍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에게, 그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작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안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빵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가 다가야냐,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빵으로, 육신으로, 배부름으로 영혼 사랑을 막는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통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주에 뭘 통번역해줘야 해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사망이 뭔지에 대해서, 확증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를 구원하신 그 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복음이 악한 자를 이겼음을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통번역해줘야 합니다.

<본론>

1.보라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답을 내고 결론 내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걸 확증해야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곧 나이고 선택이 곧 미래가 됩니다. 지나가는 것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보다 감사를 선택하면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란 것입니까? 너는 무슨 답이 났고 어떤 길을 가고 네 눈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빠져나온 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3:1)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3:2)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내 생명의 주인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놀래 자빠질 일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입니까?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확인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3:3)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3:4-6)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불법 안에 있는 자는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우리 양심이 못 견뎌집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짓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것은 불법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요일3:7)

여러분이 말에 속지 않기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불법을 행하도록 속이는 존재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임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3:9)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확증되어야만 죄를 이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입증되어야만 죄를 이기고 불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새 생명, 재창조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 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3:10)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죄 사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우리의 신분의 갈림길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나고 그 선택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 자녀나, 두가지 선택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혼 사랑이 없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빵 주고 떡 주면서 생명은 안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요일3:11)

처음부터 들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요일3:12)

가인이 누구입니까?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롭습니까? 가인은 농사일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럼 첫 열매로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대신한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비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제물인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당연한 것을 했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그게 억울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나갈 때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일3:13)

여러분 직장에서 미움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일3:14)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3:15)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37나라와 5000 종족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 궁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 궁리가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렵니까?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증했습니다. 저는 암이 걸려도 항암치료 안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시간이 최고입니까? 건강의 주인, 돈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최고입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의 주인이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3:17)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3.자녀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전도를 말로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진짜 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되고 안되고 결과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요일3:19)

해 봐야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몰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도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정 안되면 길가는 아이들 붙잡고라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요일3:20)

하나님은 내 상황, 내 모습, 내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3:21-22)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받고 싶습니까? 전도, 선교, 237나라 5000종족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 받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3:23)

전도, 선교, 237 5000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전달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3:24)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알고 입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내고 입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질문하시며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곧 나이고, 내 미래입니다. 무엇에 도대체 유익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늘 의식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